

# 통사적 의존형태소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이지수\*

## I. 서론

전통적으로 파생접사로 분류된 것들 가운데 구(句) 이상의 단위와 결합하여 통사적인 구성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어의 개념과 품사 분류, 단어형성의 층위, 굴절 체계의 적용 등 이들 요소가 불러일으키는 여러 문제들은 형태론과 통사론의 접점에서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국어에서 형태론과 통사론의 층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로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 국어 문법에서 굴절 체계의 적용 문제, 형태론과 통사론의 층위 문제, 이처럼 중요한 문제도 드물다고 하겠다.

통사적인 기능을 하는 단어형성 요소에<sup>1)</sup> 대한 논의는 김창섭(1984)에서 명사구에 접미하여 형용사구를 형성하는 ‘-답<sub>1</sub>’과 명사나 어근에 접미하여 형용사를 형성하는 파생 접미사 ‘-답<sub>2</sub>’를 나눈 것에서부터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점차 의존명사나 조사, 어미와 같이 통사론의 단위가 되는 한국어의 의존형태소<sup>2)</sup>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었다.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통사적인 기능을 하는 단어형성 요소’라는 말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제목에서와 같이 ‘통사적 의존형태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통사적인 기능을 하는 의존형태소라는 의미이다.

2) 의존명사나 조사, 어미가 갖는 의존성이 모두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박진호(1994: 22-25)에서는 의존성의 유형을 음운론적인 것, 형태론적인 것, 통

통사적 의존형태소를 다룬 논의는 크게 접사설, 접어설, 부접어설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통사원자 또는 교착소라는 개념으로 국어 문법 전반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통사적 의존형태소를 포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들 각 논의는 모두 공통적인 현상(통사적인 기능을 하는 의존형태소)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기존의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 사이에 중심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다루는 대상 범위까지 큰 입장차가 있다. 본고는 1980년대 이후 최근 까지 이루어진 통사적 의존형태소에 대한 연구들을 비교, 검토하고, 각 학설 간의 관계와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본 것이다. 더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는 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통사적 의존형태소’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

사론적인 것, 의미론적인 것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의존성’에 대한 이와 같은 정치한 구분은 본고에서 다루게 될 여러 가지 의존적 요소들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언어 요소가 음운론적으로 의존적이라 함은 그 요소가 독립적인 운을 구조를 갖지 못하여 항상 다른 요소와 결합해야만 발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요소가 의미론적으로 의존적이라 함은 그 요소가 다른 요소와 결합해야만 완전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먹’이 먹는 자와 먹히는 대상을 요구하는 것이 의미론적 의존성의 좋은 예이다. 통사론적 요구는 강한 요구와 약한 요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요소 A가 다른 요소 B를 강하게 통사론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B없이 쓰인 A는 통사론적으로 비적격하다는 뜻이다. A가 B를 약하게 통사론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A가 B없이 쓰여도 문법적이기는 하나 B가 출현할 때에는 반드시 특정 범주로 제약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동사 어간과 문말어미는 서로를 통사론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동사 ‘복종하-’는 조사 ‘-에/에게’를 통사론적으로 약하게 요구한다. 통사론적 의존성이 통사적 결합 관계에서 실현된다면, 형태론적 의존성은 형태론적 결합 관계에서 실현된다. 예를 들어, 파생접미사 ‘-개’는 동사 어간을 형태론적으로 요구한다.

## II. 통사적 의존형태소에 대한 여러 입장

### 1. 통사적 접사설

통사적 접사설은 고창수(1986)에서 비롯되어, 임홍빈(1989)에서 그 개념이 정리되었고, 시정곤(1994)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이후 황화상(1996) 등에서 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sup>3)</sup> 각각에서 사용된 용어나 다루어진 대상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모두 기존의 파생과 굴절로 양분되는 접사체계로는 통사적 의존형태소가 보여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황화상(1996)은 비교적 견해 차이가 크다고 생각되므로 이 논의를 제외한 나머지 세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1) 가. 어간형성접미사는 내적구성의 서열성을 갖고 있으며, 문장의 어떤 요소들 (Phrase)을 어간화하면서 선행요소들의 범주 및 기능에 변질을 가하는 통사적 접미사로 정의한다. (고창수, 1986)
- 나. 어휘적 의미를 온전히 가지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문법적인 요소가 통사적 구성 뒤에, 통사적인 연결 장치의 도움 없이, 연결되는 것을 ‘통사적 파생’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임홍빈, 1989)
- 다. 어휘부(Lexicon)에서 어근(Root)과 함께 단어형성에 참여하는 일련의 접사와 통사부에서 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구를 형성하는 접사로 양분할 수 있다. 우리는 전자를 ‘어휘적 접사(lexical affix)’라 하고, 후자를 ‘통사적 접사(syntactic affix)’라고 가정하고 ... (시정곤, 1994)

고창수(1986, 1992)는 국어의 접미사들을 파생접사와 굴절접사로 나누는 이원분류가 교착어인 국어 접사를 논의하는 데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어휘접사와 통사접사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어휘접사는 핵에 직접 부착되는 접사로, 통사접사는 투사범주를 어기로 하는 접사로 서로 구분되며, 통사접사는 다시 접사 상호간의 서열적 특성에 의해 굴절접미사와 어간형성접

---

3) 황화상(2005: 271).

미사(stemformtives)로 대별된다고 하였다.<sup>4)</sup>

시정곤(1994, 2006)은 파생과 굴절에 기반을 둔 접사체계가 굴절어 연구를 위해 제시된 구분이라고 하면서 국어의 접사 체계를 어휘적 접사와 통사적 접사로 구분한 점에서 고창수(1986) 등과 견해를 같이 한다. 접사는 X<sup>0</sup>와 결합하는 어휘적 접사와 XP와 결합하는 통사적 접사로 나눌 수 있으며, 통사적 접사는<sup>5)</sup> 다시 논항구조를 갖는 통사적 어휘접사와 의미역 배당을 할 수 없고 문법적인 기능만 더해주는 통사적 기능접사로 나누어진다.

임홍빈(1989)는 새로운 접사 체계를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통사적 파생’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본질적으로 형태론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던 파생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위 세 가지 연구가 모두 기존 의미의 ‘파생’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파생’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창수(1986, 1992)는 기존에 형태론적 차원으로만 다루어지던 파생의 개념을 단어 이상의 단위에까지 적용 가능한 것으로 재설정하고, 격조사는 통사접사의 하위 분류인 굴절접사로 파악하였다. 즉 파생의 범위만 확대했을 뿐 굴절의 개념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정곤(1994, 2006)에서 통사적 접사는 2.4.에서 다루게 될 통사원자, 교착소 개념과 유사한 일면이 있다. 접사는 음운론적으로 의존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일 뿐, 국어에서 파생과 굴절의 구분은 어려우며, 접사는 그것과 결합하는 대상의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기존 논의가 파생접사의 통사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 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사적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지는

4) 조사 및 어미에 대해서 시정곤(1994, 2006)과 임홍빈(1989)에서 하위 구분 없이 모두 통사적 접사에 포함시킨 것과 달리 고창수(1986, 1992)는 격조사와 보조사,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를 분리해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하였다. ‘굴절접미사의 서열적 특성은 Nida(1978)의 견해대로 구조를 폐쇄(construction closing)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후치사는 어간형성접미사에, 격어미는 굴절접미사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미의 경우에는 선어말어미는 어간형성접미사에, 어말어미는 굴절접미사에 포함시켰다.

5) ‘통사부에서 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구를 형성하는 접사’로 정의된다(시정곤, 1994).

논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여기와 통사적 접사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한 기제로 핵이동을 가정하였다. 임홍빈(1989)는 ‘파생’ 속에 굴절접사로 다루어왔던 격조사까지 포함시켜 다루고 있어, 이 논의에서 굴절의 개념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연구가 갖는 차이를 용어와 다루고 있는 대상의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다음 (2)와 같다.

## (2) 각 연구에서의 용어 및 대상 비교

	용어		대상
	결합 과정	통사적 의존형태소	
고창수 (1986, 1992)	통사적 어형성	통사접사 (어간형성접 미사/굴절접 미사)	① 기존의 파생접미사(-ㅁ/기, -하, -롭, -답, -되) ② 부사형 어미 및 부사화접미사(-아, -어, -게, -지, -고, -면, -이) ③ 일부 특수조사(-나, -나마, -야) ④ 지정사 혹은 서술격조사(-이) ⑤ 피사동접사(-이, -히, -리, -기) ⑥ 시상어미 및 존대법어미(-ㄴ, -ㄹ, -니, - 았, -겠, -시, -옵)
시정곤 (1994, 2006)	통사적 접사화	통사적접사 (통사적어휘 접사/통사적 기능접사)	파생접미사(-ㅁ/기, -답-, -같-, -되-, -거리-, -대-, -자-), 부사화접사(-이), 피동접사 (-이, -히, -리, -기), 조사, 어미
임홍빈 (1989)	통사적 파생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	‘끼리, 들, 씩, 째, 께2(보름-), 뿐, 답-, -스 럽-, 싶-(성싶다), 하-(듯하다), 들...’, 조사, 어미

통사적 접사설에 포함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로 황화상(1996, 2005)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어휘적 접사와 통사적 접사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념은 위에서 다룬 연구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고창수(1986, 1992), 임홍빈(1989), 시정곤(1994, 2006) 등이 모두 여기의 투사 범주를 접사의 기본적인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면, 황화상(1996, 2005)는

접사의 결합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형태론의 영역이며 오직 어휘적 단위인 어근만이 접사의 어기가 된다고 하여 통사적 접사설의 여타 논의와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 통사적 접사는 선행 어근의 통사 범주를 폐쇄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단어형성부에서 단어형성요소로서의 접사를 지칭할 때 필요에 따라 어휘적 접사와 구분해 쓰일 수 있는 것이다.

(3) 철수는 착한 [[학생]<sub>N</sub>[이]<sub>V</sub>다]<sub>VV</sub><sup>6)</sup>

곧 (3)과 같은 구조를 상정할 수 있는데, 통사적 접사 ‘-아’는 형태론적으로 선행 어근 ‘학생’에 결합하지만 선행 어근의 통사 범주 [N]을 폐쇄하지 못하고, 따라서 통사적 단어<sup>7)</sup> ‘학생이다’는 통사 범주 [N]을 갖게 되어 관형어 ‘착한’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사부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형태부의 독립적인 영역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앞의 세 연구와 구별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 2. 접어설

접어는 음운론적 행동에서는 굴절 접사(inflectional affixes)의 속성을, 문법적 기능에서는 독립어(independent word)의 속성을 갖는 요소를 가리킨다.<sup>8)</sup> 한국어의 통사적 의존형태소를 접어로 분석한 연구는 최규수(2001)과 채희락(2007) 등을 들 수 있다.

최규수(2001)에서는 ‘하다’와 ‘이다’가 뒤따르는 ‘양, 법’ 따위의 이른바 ‘양태성 매인이름씨’와, 비교적 다양한 구조를 형성하는 ‘하다’와 ‘이다’ 따

6) 통사적 단어 ‘학생이다’는 두 개의 통사 범주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어근 ‘학생’의 통사 범주 [N]뿐만 아니라 ‘-아’의 통사 범주 [V]도 동시에 가지므로 해당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인다(황화상, 2005: 273).

7) 황화상(2001: 38-39)에서는 통사적 단어를 ‘통사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어’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통사적 접사를 ‘통사적 단어를 형성하는 접사’로 규정했다.

8) Arnold M. Zwicky(1992).

위의 ‘매인풀이씨’가<sup>9)</sup> 형태 구조와 통어 구조의 불일치를 보이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이들을 ‘접어’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 (4) 가. /영이는/철수가/집에/가게 하였다/  
나. [영이는 [철수가 집에 가게] 하였다]
- (5) 가. /영이는/영어를/할 줄(을)/모른다/  
나. [영이는 [[영어를 할]줄(을)] 모른다]<sup>10)</sup>

위의 예에 대해서 ‘하다’와 ‘줄’은 형태적으로는 의존 형식으로서 반드시 앞선 말과 결합하여 하나의 최소 자립 형식을 형성하지만,<sup>11)</sup> 통어적으로는 월 구조의 한 단위로서 자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이들을 접어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어에 굴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부터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굴절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접어를 국어 분석에 사용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또 이점은 양보하고 받아들이더라도, ‘하다’와 ‘줄’ 같은 요소가 음운론적 행동에서 굴절 접사의 속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들이 직관적으로 접미사나 어미 등과는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한국어가 갖는 ‘굴절 접사’의 속성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접어 분석의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채희락(2007)에서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는 구 이상의 단위와 결합하는 요소의 존재를 접이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접어는 굴절 접사와 단어의 중간적인 속성을 갖는 것으로서, 국어의 후치사(부사격조사), 한정사(보조사), 단위성 의존명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명사와 형용사 및 관형사와 부사에는 일반 자립 단어와 더불어 접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9) ‘매인이름씨’는 형식명사 또는 의존명사에 대응하는 용어이며, ‘매인풀이씨’는 보조용언 또는 형식동사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최규수(2001)에서는 ‘매인풀이씨’와 ‘매인이름씨’를 묶어 ‘형식 품사’라고 하였다.

10) 최규수(2001: 81), 밀줄은 필자.

11) ‘하다’와 ‘줄’을 형태적으로 의존적인 요소로 보고, ‘가게 하였다’와 ‘할 줄’과 같은 구성을 하나의 최소 자립 형식이라고 기술한 점은 앞서 살펴본 의존성의 하위 유형들을 정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한다.

전통적인 품사 분류 체계 내에서 단어와 접어를 분류한 새로운 품사 체계를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채희락(2007)에서 제시한 새로운 품사 체계와 구체적인 접어의 종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새로운 품사 체계: 접어류 포함(채희락 2007: 818)<sup>12)</sup>

	품사	종류
체언	명사	독립 단어, 접어: '-짜리, -쯤, -내, -간, ...'
	대명사	독립 단어
	수사	독립 단어
용언	동사	독립 단어
	형용사	독립 단어, 접어: '(학생)-이다, (건강)-하다, -답다, ...'
수식언	관형사	독립 단어, 접어: '제-, 전-, 흰-, 구-, ...'
	부사	독립 단어, 접어: '내리-, 되-, 들이-, ...'
	한정사	접어: '-만, -조차, -까지, -도, ...'
관계언	후치사	접어: '-에, -에서, -로, ...'
	접속사	독립 단어, 접어: '-와/과, 및, 내지, ...'
독립언	감탄사	독립 단어

이 논의에서는 넓은 의미의 접어 속에 전형적인 접어인 “순접어(Bound Words)” 이외에 이들보다 굴절 접사적인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구접사(Phrasal Affixes)”와 전형적인 접어보다 일반 단어적인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필수) 의존사(Obligatory Leaners)”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우리말에는 후치사(부사격 조사)나 한정사(보조사) 등이 순접어에 해당되며, 주격/목적격/관형격 조사가 구접사에, 그리고 단위성 의존명사를 제외한 의존명사가 의존사에 각각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국어에 접어 범주를 설정하면 통사적 의존형태소가 갖는 특이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의존 명사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의존 명사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하는 것은 그것이 전형적인 접어는 아니지만 접어의 성격을 갖는 ‘의존

12) 음영은 필자.

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순접어는 관형사나 관형절에 의해 수식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은 순접어가 갖는 제약으로 설정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접어 범주에 속하는 두 요소가 관형절의 수식과 관련해서 서로 상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접어의 성격으로, 다른 하나는 접어의 제약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sup>13)</sup>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접어 관형사의 설정이다. [주-[베트남] [한국 문화원]]과 같은 예에서 ‘주베트남’은 명사나 명사구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고 항상 관형어로서의 역할만 하는데, 만약 ‘주-’가 파생접두사라면 우리 말에도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접두사가 있다고 가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접어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와 같은 요소를 접어 관형사로 설정한다면 [주<sub>A</sub>[베트남]<sub>NPLAP</sub>]과 같은 분석을 해야 하고, 한국어에서 핵이 앞에, 보충어가 뒤에 오는 경우를 받아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주베트남’을 관형사가 아니라 명사구가 관형어 용법으로만 쓰이는 경우로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예외를 두어야 한다면 이쪽이 문법 기술에서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 3. 부접어설

부접어는 김창섭(2007, 2011)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부접어는 반드시 무표지 명사구를 보충어로 요구하는 어휘 범주이다. 보충어가 무표지 명사구라는 것은 보충어가 격표지를 가질 수 없고, 보충어와 부접어 사이에 부접어를 수식하는 어떤 요소도 올 수 없음을 말한다. 임홍빈(1989)에서 ‘통사적

13) 참고로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는 의존명사와 수식을 받을 수 없는 통사적 의존형태소에 대한 김창섭(2007)의 기술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의존명사는 외부보충어에 의존하는 종류와 내부보충어에 의존하는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언제나 내부보충어에 의존해야만 출현할 수 있는 의존명사 를 특별히 부접명사로 부르고 있으므로 그 밖의 의존명사, 즉 외부보충어, 관형사, 관형절에 의존하는 의존명사는 일단 일반 의존명사라고 불러서 부접명사와 구별하기로 한다.”(김창섭 2007: 35).

인 연결 장치의 도움 없이’라는 ‘통사적 파생’의 조건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앞 장에서 다룬 접어와 본 장의 부접어는 어휘 요소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법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통사적 접사설과 대비되지만, 온전히 문법적인 요소로도, 어휘적인 요소로도 볼 수 없는 중간적인 영역에 속하는 일부는 양 쪽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sup>14)</sup>

국어에서 부접어 범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부접 명사, 부접 부사, 부접 동사(형용사 포함)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요구하는 ‘부접 보충어’는 새로운 문장 성분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품사별 부접 구성의 예를 몇 가지만 보이면 아래와 같다.

#### (7) 부접 명사

- ㄱ. [철수의 [고향에 대한 [갑작스러운 [[생각]N]NP]NP]NP]
- ㄱ'. [철수의 [고향]NP [[생각]N]NP]NP
- ㄴ. [통사론의 인접 분야의 [적]
- ㄴ'. [통사론의 인접 분야] 그려한[적]
- ㄴ''. [[통사론의 인접 분야]NP [적]N]NP

#### (8) 부접 부사

- ㄱ. [[그 애]NP [흔자]ADVL]ADVP
- ㄴ. [[누나]NP [몰래]ADVL]ADVP

#### (9) 부접 형용사

- ㄱ. 철수는 [[국문과 학생]NP [답]V]VP다.
- ㄴ. 철수는 [[국문과 학생]NP [이]V]VP다.

(7)에서 부접 명사의 예로 든 ‘생각’은 (7-1)과 같은 구성 속에서는 일반 명사로 분류되지만 (7-1')과 같은 구성 속에서는 부접 명사로 분류된다. ‘철수의 고향의 생각’, ‘철수의 고향 갑작스러운 생각’과 같은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어휘가 일반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접어적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7-2)의 ‘적’은 사전들에서

14) 예를 들어 ‘답-’, ‘하-’, ‘싶-’은 김창섭(2011)의 부접어이기도 하고 임홍빈(1989)의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이기도 하다.

15)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어휘가 두 종류의 용법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김창섭(2011)의 논의와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생각’의 경우, 일반 명사 ‘생각’과 부접 명사 ‘생각’이 있으며, 이들의 구별을 그때그때의 통사론적 구성 방식

접미사로 분류한 것인데, 무표지 명사구에 직접 결합하여 명사구를 만들므로 부접 명사로 분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접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게 되면 기존에 과생접미사로 다루었던 통사적 의존형태소들에 단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품사를 나눌 수 있게 된다. (9ㄴ)의 '-이-'는 그 특이한 성격 때문에 기존에 조사설, 형식동사설, 형용사설, 선어말어미설, 용언설 등의 견해가 팽팽히 맞섰던 요소이다. 이를 부접 형용사라고 하면 'X가 Y이다' 구문에서 Y에 격조사 '이'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서술어 '이-'가 부접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 다룬 접어설과 마찬가지로 부접어설은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등의 어휘 범주에서 통사적 의존형태소를 추출하고, 부접이라는 하나의 범주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갖는 공통점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부접 명사에 해당하는 '출신'이나 '생각', 또는 부접 부사에 해당하는 '혼자', '몰래' 등은 통사적 접사설의 논의들이 미처 관심을 두지 못했던 요소들이다.<sup>16)</sup> 반드시 보충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다른 어휘 요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단 현재 제시된 부접어가 전체 완전한 부접어 목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어휘 범주 전반에 대해 부접어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채희락(2007)에서 접어 명사로 분류한 단위성 의존명사가 부접 명사로 포함될 가능성성이 있는데, 만약 단위성 의존명사를 포함해 다른 부접어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부접어 집합이 더 커진다면, 부접이라는 부류를 설정해야 할 타당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

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동사 '시작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1) ㄱ. 선생님들이 발언을 시작하셨다. (일반 동사 '시작하-')

ㄴ. [선생님들께서 토론장에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부접 동사 '시작하-')

ㄷ. \*선생님들께서 토론장에 들어오시기가/를 시작했습니다.

본고의 기술은 일반 명사나 일반 동사 중 부접 명사 혹은 부접 동사로서의 용법 까지 가진 것이 있다고 본 것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 기술 방법의 차이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 16) 통사적 접사설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들은 대개 음운론적으로 의존적인 요소인데 반해, 부접 명사나 부접 부사는 의미론적, 통사론적 의존성을 갖지만 음운론적 의존성은 갖지 않는다는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 4. 통사원자와 교착소

통사원자와 교착소는 앞 장에서 다루었던 통사적 파생 접미사나 접어, 부 접어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 대상인 통사적 의존형태소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기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통사원자와 교착소도 서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분석적 체계에 입각해 도입된 개념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앞에서 다룬 접어 등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본 장에서 함께 다룬다.

먼저 통사원자(syntactic atom)는 박진호(1994)에서 사용한 용어로, Di Sciullo & Williams(1987)에서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박진호(1994)에서는 기존의 ‘단어’ 개념에 음운론적 기준과 통사론적 기준이 섞여 있음을 비판하고, 통사 현상은 통사론적 기준에 따른 단위를 사용하여 기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떤 언어 단위가 자립적이나 의존적이나 하는 것은 홀로 발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독립적인 운율 구조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서, 여기서 독립된 운율 구조를 가지는 단위가 음운론적 단어이다. 그리고 ‘통사론의 기본 단위로서의 단어’가 통사 원자이다. 이 둘은 전혀 이질적인 개념이고 동형적(isomorphic)이지 않다. 굴절어에서는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원자가 대개 일치하지만<sup>17)</sup> 국어의 경우는 자주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원자가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조사와 어미인데, 조사와 어미는 통사원자이지만 음운론적 단어는 아니라고 하였다. 통사원자는 일반적인 단어 개념과 유사하다. 통사원자의 범주에는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격조사, 문말어미, 보조사, 선문말어미, 접속사, 감탄사가 있다.

17)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원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굴절어에서는 특별하게 인식되어 접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원자를 분리하게 되면 이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접어, 통사적 접사 등의 개념이 필요없게 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통사적 의존형태소는 그저 통사원자일 뿐이다. 그리고 음운론적 단어는 아닌 것이다.

교착소는 임홍빈(1997)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국어의 조사와 어미가 선행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인 구성에 연결된다는 것은 이들이 곡용이나 활용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선어말 어미를 포함한 어미, 그리고 조사는 모두 파생이나 굴절의 어느 한 범주에 정확하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굴절 범주에 의한 국어 문법의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교착법 체계를 제안하였다.

(10) 새로운 명명의 체계

- 가. 굴절법  $\Rightarrow$  교착법/첨가법
- 나. 활용/활용법  $\Rightarrow$  용언구 교착법, 또는 문미 교착법/첨가법
- 다. 곡용/곡용법  $\Rightarrow$  체언구 교착법, 또는 조사 교착법/첨가법

교착소는 통사적 구성 뒤에 첨가되어 다시 통사적 구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통사원자와 유사하지만, 어휘 요소는 제외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논의에서는 어휘적인 요소는 결코 교착소가 될 수 없다는 ‘교착소의 비어휘 조건’을 세우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술은 재구조화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동사어간+어미’를 어절 또는 단어 등으로 불러왔고, 이 단위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는 등 그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하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이 논의에서는 ‘재구조화’라는 장치를 설정한다. 흔히 국어의 교착소는 선행 요소와 함께 재구조화되어 하나의 성분처럼 인식된다. 재구조화 과정에 의하여 통사적 구성은 인식상 형태론적 구성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다.

### III. 견해의 비교

통사적 의존형태소를 설명하는 각각의 견해들은 대체로 공통된 대상이 보여주는 동일한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견 용어만 다를 뿐 비슷한 해석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견해의 바

탕에는 단어의 개념과 품사 분류, 단어형성의 층위, 굴절 체계의 적용 등 문법 기술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개념을 전제로 하거나 문법 체계의 틀을 세우는 데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한다. Ⅲ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단어의 개념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개념 중 ‘단어’만큼 정의하기 어렵고, 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도 드물 것이다. 단어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도 여러 가지이고, 각 기준에 따라 형성된 ‘여러 가지’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 또한 다양할 수 있다. 언어학에서 주로 구분되는 단어의 종류로는 orthographic word, lexical word, semantic word, phonological word, morphological word, syntactic word, grammatical word 등을 들 수 있다. 국어의 경우는 조사와 어미의 처리 방식에 기초하여 세 가지 유형의 한국어 문법 체계를 구별해 왔는데, 이에 따라 단어의 개념도 달라진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 사용하는 단어 개념은 절충적 체계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조사는 단어이지만 어미는 단어가 아니다. 종합적 체계에 의한 단어 개념은 어절 단위에 대한 인식이 강한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이 주장했던 분석적 체계에 의한 단어의 개념은 근래에 와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진호(1994)에서 주장한 ‘통사원자’는 분석적 체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조사와 격조사, 선문말어미와 문말어미 모두 통사원자로서 단어의 지위를 갖는다. 이 논의에서는 단어를 정의하는 데 두 가지 이질적인 개념, 즉 음운론적 개념과 통사론적 개념이 결합되어있음을 지적하였다. 음운론적 개념에 따른 단어는 음운론적 단어(phono logical word)이고, 통사론적 개념에 따른 단어는 통사론적 단어(syntactic word)이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 분리된 통사론적 단어가 바로 통사원자인 것이다.

‘통사원자’의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이 임홍빈(1997)의 ‘교착소’이고 시정

곤(1993, 1994, 2006)의 ‘통사적 접사’이다. 교착소나 통사적 접사 모두 문법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단어’ 개념과 맞바꿔 쓸 수는 없으나, 이들은 모두 통사론적 단어로서 기능하는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래서 굴절 개념에서 벗어나 분석적 체계에 입각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같은 통사적 접사설에 포함해 다루었지만, 황화상(1996, 2005)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개념은 앞의 것들과 차이가 있다. 통사적 단어를 ‘통사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어’로 정의하고 ‘학생이다’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정의와 예를 보면, 통사적 단어란 어근에 통사적 접사가 결합한 단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의 어절 단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정서법적 단어(orthographic word)에 해당되고, 종합적 체계에서 바라보는 단어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논의 가운데 단어의 개념을 분명히 밝히진 않았지만, 최규수(2001)과 채희락(2007)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의 개념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규수(2001)는 ‘가게 하였다’와 ‘할 줄(을)’과 같은 단위에 대해서 ‘하나의 자립 형식’이라고 하였는데, 단어를 ‘최소의 자립 형식’으로 정의한 블룸필드의 정의를 떠올리게 한다. 여기서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는 분석적 체계, 종합적 체계, 절충적 체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음운론적 단어(phonological word)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채희락(2007)에서는 새로운 품사 체계를 제안하였는데 각각의 품사에는 독립 단어와 함께 접어류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음운론적 행동에서는 굴절 접사의 속성을, 문법적 기능에서는 독립어의 속성을 갖는 요소’라는 접어의 정의 중에서 후자, 즉 문법적 기준을 중요시하여 단어로 인정한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하면 통사적 단어(syntactic word)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 2. 단어형성의 층위

본 장의 제목인 ‘단어형성의 층위’라는 것은 편의적인 명명이다.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통사적 의존형태소가 선행 요소와 결합을 하는 과정

이 어느 층위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로, 견해별로 명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형태부와 통사부를 분명히 구분하고 단어 형성은 형태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통사적 의존형태소의 결합을 통사부만의 소관으로 보는 것이며, 세 번째는 형태부와 통사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첫 번째 견해에 해당하는 것은 황화상(1996, 2005)이다. 여기서는 통사부의 단어 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접사의 결합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형태론의 것이며, 통사적 접사의 결합도 어휘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통사적 의존형태소가 통사적인 결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통사적 접사가 선행 어근의 통사 범주를 폐쇄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창섭(2007, 2011)에서의 부접어는 단어이다. 보충하자면 구 범주의 보충어를 요구하는 의존적인 성격을 갖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통사적 접사설에서 다룬 동일한 요소에 대해 부접이라는 범주를 부여한 것은 구 이상의 단위와 결합하는 접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첫 번째 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통사적 의존형태소의 결합을 통사부만의 소관으로 보는 두 번째 견해에는 황화상(1996, 2005)을 제외한 통사적 접사설이 해당된다. 고창수(1992)에서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형태부와 통사부가 독립된 단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양자는 한 부분의 두 층위(tier)로 관찰되는

18)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김창섭(1994/1996)나 김창섭(2005)도 형태부와 통사부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참고할 수 있다. 김창섭(1994/1996)에서는 어휘적 접사와 통사적 접사의 구분 체계는 ‘뛰어갔다’, ‘작은집’과 같이 형태론적 차원의 단어 형성 과정에서 통사론적 요소인 조사, 어미가 결합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김창섭(2005)에서는 ‘정밀 검사비’, ‘적극 지원자’와 같이 구적이며 동시에 복합어적인 구성에 대해 ‘소구(小句)’라는 새 범주를 설정하였는데, 그것은 어휘부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소구에 해당하는 ‘초과 지출액’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과 지출]소구[액] 단어점미사]소구’

것이 온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사부 안에 단어형성규칙이 작용하는 것이며, 통사적 접미사란 바로 통사구조에 의해 도입되지만 단어형성규칙의 지배를 받는 일련의 접사들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통사원자’와 ‘교차소’의 개념을 도입한 박진호(1994), 임홍빈(1997)도 두 번째 견해에 포함된다. 그러나 형태부와 통사부가 ‘한 부분의 두 층위’라고 한 고창수(1992)와 달리 두 영역이 분명하게 갈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통사적 의존형태소는 모두 ‘통사원자’에 해당되는데, 통사원자는 통사론의 최소단위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형태론은 통사원자의 내부 구조를 다루는 것으로, 형태부란 순수한 의미의 파생접사와 어기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축소된다.

세 번째 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최규수(2001)을 들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형식품사의 이중적 특성은 통어론과 형태론에서 독립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접어는 형태론과 통어론이라는 문법의 하위 부문들을 독립적으로 간주하고, 그것들에 각각 다른 문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9)</sup>

### 3. 굴절 체계의 적용

국어 문법 기술에 있어서 굴절 개념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폐기할 것이냐의 문제는 한국어 형태론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룬 논의 중에서 접어설은 ‘접어’라는 용어 자체가 굴절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국어에서 굴절 체계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채희락(2007)에서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격/목격격/관형격 조사는 굴절접사적인 성격을 더 갖고 있는 것”, “복수 의미 ‘-들’과 ‘-사-, -었-, -겠-’ 등의 용언 어미는 굴절접사”라고 하여 굴절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문제는 인구어의 굴절과 국어에서 용언과 어미의 결합, 혹은 체언과 조사의 결합 양상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 논의 중에 포함된

---

19) 형태부와 통사부가 독자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은 J.M. Sadock(1991)이 대표적이다.

“접어의 존재 여부는 그 언어의 굴절성과 관계가 없으며 굴절어뿐만 아니라 교착어와 고립어에도 존재하는 언어 단위이다.”라는 언급으로 미루어 보면 한국어식 굴절 개념과 접어의 정의에 깔린 굴절 개념을 분리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통사적 접사설 중에는 고창수(1992)가 굴절 체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사적 접사를 다시 굴절접미사와 어간형성접미사로 구별하였는데, 격어미는 굴절접미사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임홍빈(1989)에서 파생의 개념이 굴곡접사들에게까지 적용된 점을 비판하고 있다.

박진호(1994)와 임홍빈(1997)은 굴절 체계의 폐지를 주장한다. 한국어가 교착어라는 점, 그리고 체언과 조사의 결합이나 용언과 어미의 결합이 굴절 어의 굴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조사와 어미를 완전히 형태론적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인식한 것은 기술언어학 시기에 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고, 생성문법 시기부터는 이들을 본격적으로 통사론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조사와 어미를 완전히 형태론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통사원자나 교착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많은 용어들을 폐기하고, 전체 문법 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어절이나 단어 등으로 불러 온 ‘동사이간+어미’의 단위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하다. 임홍빈(1997)에서는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구조화’라는 장치를 설정하는데, 이렇게 재구조화된 단위는 어느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은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 구분은 형태론적 유형론에 기반한 것이므로, 원래 ‘교착’이란 용어 자체도 형태론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통사적 의존형태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통사적 접사설, 접어설, 부접어설, 통사원자와 교착소 등의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II장에서 각 견해를 소개했으며, III장에서 단어의 개념, 단어형성의 층위, 그리고 굴절 체계의 적용을 기준으로 각 견해들을 비교하였다.

통사적 의존형태소가 보여주는 구(句) 이상의 단위와 결합하는 현상은 국어의 일부 요소가 갖는 특이성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굴절 체계의 적용 문제, 형태론과 통사론의 층위 문제 등 국어 문법 기술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깊이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여러 견해들은 각 논의 내부에서 논리적인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과 근거의 바탕을 이루는 이론적 체계는 서로마다 입장 차이가 있으며, 국어에서 통사적 의존형태소에 대한 합리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민과 엄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연구는 여러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비교하는 데 그쳤으며, 실제 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 전반에 대해 통사적 의존형태소를 분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보다 타당한 이론적 체계를 세우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 참고문헌

- 고재설(1994), 〈국어 단어형성에서의 형태·통사원리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창수(1986), 〈어간형성접미사의 설정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22, 국어학회, 259-269.
- 김창섭(1984), 〈형용사 과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답·, -스럽·, -롭·, -하·’와 ‘-적’의 경우—〉, 《진단학보》58, 진단학회, 145-161.
- \_\_\_\_\_(1994/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_\_\_\_\_(2005), 〈소구(小句)의 설정을 위하여〉,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임홍빈 외 38인 공저), 태학사, 109-127.
- \_\_\_\_\_(2007), 〈부접명사의 설정과 식별〉, 《국어학》50, 국어학회, 27-55.
- \_\_\_\_\_(2011), 〈부접어의 설정과 부접구성〉, 《국어학》62, 국어학회, 47-72.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1999), 〈형태론의 제자리 찾기—인접 학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태론》1-2, 319-340.
- 시정곤(1993),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1994),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한글》223, 한글학회, 49-79.
- \_\_\_\_\_(2006), 〈우리말 접사의 통사론적 고찰〉, 《우리말연구》19, 우리말학회, 113-142.
- 임홍빈(1989), 〈통사적과생에 대하여〉, 《어문연구》25-1, 서울대 어학연구소, 331-384.
- \_\_\_\_\_(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2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93-163.
- 채희락(2007), 〈접어와 한국어 품사 분류: 품사 재정립 및 띄어쓰기 재고〉, 《언어》32-4, 언어학회, 803-826.
- 최규수(2001), 〈형식품사의 형태통이론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글》252, 79-108.
- 최웅환(1995), 〈기능소로서의 접사에 대한 통사적 해석〉, 《국어학》25, 국어학회, 51-76.

- 하치근(1989), 『국어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 황화상(1996), 『국어체언서술어의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5), 〈통사적 접사 설정의 제 문제〉, 『한국어학』 28, 한국어학연구회, 269-294.
- Arnold M. Zwicky(1992), *ENCYCLOPEDIA OF LINGUISTICS*, WILLIAM BRIGHT Editor in chief, OXFORD UNIVERSITY PRESS.
- Di Sciullo A.-M. & E. Williams(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The MIT Press.
- Francis Katamba(2006), *Morphology*, 김경란, 김진형 옮김, 2008, 『형태론』, 한국문화사.
- J.M. Sadock(1991), *AUTOLEXICAL SYNTAX: A Theory of Parallel Grammatical Representa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